

"21세기 한반도를 亞洲경제 軸으로"

223, 95.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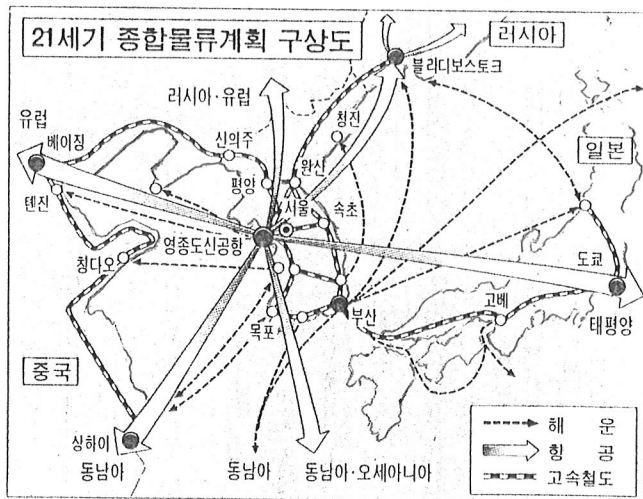
첨단물류·교통시설 확충시급 금융·관세 경쟁력있게 바꿔야

전문가들지적

「아시아경제의 축을 일
본에서 한반도로 옮기자」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아시
아경제의 중심지가 되도
록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목소리
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국민총생산의 절반이상
을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
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에 보다 역점을 두
고 외국의 자본과 생산여
량을 유치해 국토 자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
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관세 등
제도적인 측면의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과 화물 정
보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물류 및 교통시
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이 관계전문가들의 공통된
국내는 물론 주변국과 한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반도를 잇는 해운·철도도
로 및 항공시설계획을 재
점검, 미래지향적인 계획
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종도신공
항의 경우 2005년에는
연간이용객이 5천만명에
달하고 2020년에는 1
억명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
큼 현재 4개로 계획된 활
주로를 6개 이상으로 늘
리고 배후시설도 확충해
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항
만의 경우도 부산항을 동
북아 컨테이너 중심지로
육성하고 가덕도신항만을
부산항의 2배 이상규모
로 만들어 물류의 전진기
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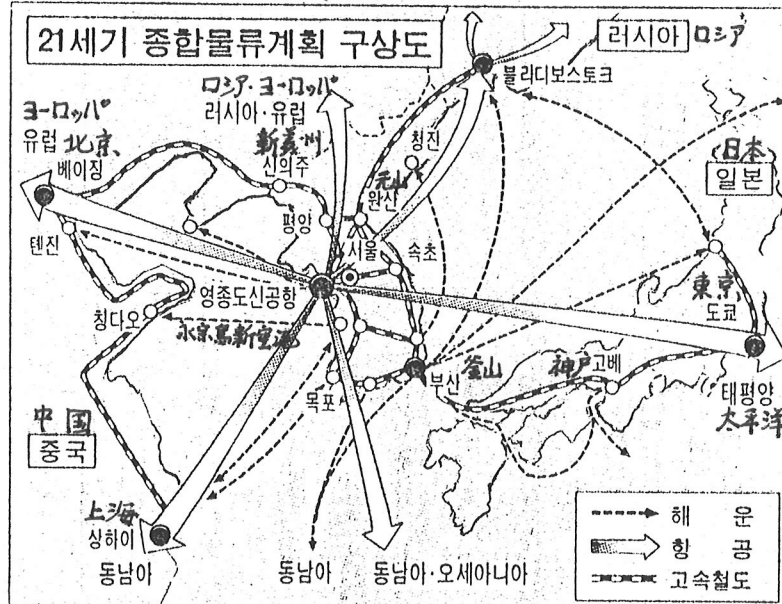
철도와 도로도 2020
년까지로 예정된 연장 7
천km의 고속도로망 구축개
획의 완성시기를 앞당기
고 간선교통망도 보다 다
양하게 구성해야 하되 특
히 ▲목포-신의주 ▲부
산-원산-나진-선봉을
잇는 고속 및 일반철도를
건설하고 ▲서울-신의주
▲평양-원산 ▲포항-선
봉의 동해안도로를 건설
한 뒤 단계적으로 ▲인천
-해주를 잇는 서해안고
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를 연장해 춘천-해선을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분
석됐다.

【金東永기자】

“21世紀の韓半島をアジア経済の軸に”

先端物流・交通施設の拡充が至急競争力をつけるため金融・関税の変革を

21世紀の統合物流計画の構想図



海運
航空
高速鉄道

「アジア経済の軸を日本から韓半島に移そう。」光復50周年を契機に、我が国が21世紀のアジア経済の中心地となるよう、政府と国民が総力を挙げねばとの声が日増しに高まっている。

国民総生産の半分以上を外国との経済交流に依存している我が国が、名実ともに先進国になるためには、輸出入により力点を置き、外国の資本と生産力を維持し、国土自体の競争力を高めねばとの主張だ。

そのためには金融、関税など制度面の環境を改善し、人と貨物、情報が迅速に移動可能な先端物流・交通施設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関係する専門家らの共通した分析である。

専門家らは国内はもちろんのこと、周辺国家と韓半島を結ぶ海運、鉄道、道路および航空施設の計画を再点検し、未来指向的な計画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ている。

専門家らは、永宗島新空港の場合、2005年には年間利用客が5千万人に達し、2020年には1億人を越えるなど需要の激増が予想されるため、現在4本が計画されている滑走路を6本以上に増やし、背後施設も拡充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見ている。港湾の場合も、釜山港を東北アジアのコンテナの中心基地に育成し、加徳島の新港湾を釜山港の2倍以上の規模で建設し、物流の前進基地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ものだ。

鉄道と道路も、2020年までに予定されていた延長7千Kmの高速道路網の構築計画の完成時期を繰り上げ、幹線交通網も、より多様に構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特に、▲木浦～新義州、▲釜山～元山～羅津～先鋒を結ぶ高速および一般鉄道を建設し、▲ソウル～新義州、▲平壤～元山、▲浦項～先鋒の東海岸道路を建設するが、段階的に、▲仁川～海州を結ぶ西海岸高速道路と、▲中部高速道路を延長し春川～恵山を結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分析している。